

『더블린 사람들』의 ‘유년기’ 소년들: 중심부재의 인식

김 상 효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다. 데리다가 조이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것과, 조이스가 그의 후기 작품에서 해체주의를 실험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주제는 조이스의 해체주의적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겠다.

이 작품의 공통된 주제는 도덕적, 지적, 정신적, 종교적 마비이다. 작가는 마비라는 일관된 주제를 통하여 구조주의적 사고를 지닌 인물들을 묘사한다. 더블린이 “마비의 중심”(Ghiselin 59)이기 때문에, 더블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폐쇄된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 문화는 모두 마비되고 부패된 상태이다. 조이스는 마비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더블린의 도덕사”를 보여주고, 이를 더블린 사람들에게 “잘 닦여진 거울”로 제시하려 하였다(*Letters* 90). 즉, 작가는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된 삶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삶을 인식하도록 고무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와 서구형이상학의 폐쇄적 성격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분석하는 것은 더블린 사람들의 폐쇄성과 조이스의 해체주의적 성격의 일면을 보여줄 것이다. 구조주의와 서구형이상학은 중심의 현존을 믿고, 해체주의는 중심이 부재한다고 전제한다(Derrida 참고). 데리다의 관점에서 볼 때,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상황은 그들이 중심의 현존을 믿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더블린 사람들』에서 ‘유년기’ 생활을 묘사한 세 단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중심의 현존을 믿고 추구한다. 반면 ‘유년기’ 소년들은 중심을 추구하지만 더블린의 마비 상황을 인식하고 중심의 부재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의 「자매들」(“The Sisters”)과 「뜻밖의 만남」(“An Encounter”), 「애러비」(“Araby”)에 나오는 소년들의 해체의식을 분석하려 한다.

II

「자매들」의 주제는 『더블린 사람들』의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마비이다. 마비의 주제는 정치, 종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더블린의 사회상을 드러내는 주요 수단이다. 이러한 주제를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과 관련하여 보면 ‘중심’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자매들」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심의 현존을 믿음으로써 폐쇄된 혹은 마비된 사고를 지닌다. 그러나 소년은 처음에는 중심의 현존을 믿고 추구하지만 결국 그 부재를 인식한다.

중심이 부재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개념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자매들」의 첫째 문장에서 작가는 중심 부재의 상황을 예시한다. “이번에는 그에게 희망이 없었다”(7)라는 표현에서 신부의 육체적인 마비 상태를 볼 수 있다. 육체적 마비는 정신적, 지적, 종교적 마비를 의미하며, 이 주제는 신부의 실재 마비 속에 암시되어 있다(Garrett 3). 이러한 암시는 신부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적, 정신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인물이 아님을 보여 준다.

즉 그는 “불완전한 인물”이다(Wohlpart 409). 신부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의 부재를 설명한다.

소년은 신부가 “나는 곧 죽을 거야”(7)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며, 신부가 죽은 후에도 신부의 죽음을 알리는 코터(Cotter)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는 포목점의 조화에 꽂혀 있는 카드의 글을 보고 난 뒤에야 신부와 할아버지의 말이 진실임을 인식한다. 즉, 그는 중심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신부의 죽음을 통해 인식하기 시작한다. 소년이 매일 밤 창문을 바라보면서 “마비”(paralysis)라는 단어를 조용하게 중얼거리는 것은 신부와 더블린 사회의 마비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다. 더블린 사회가 마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중심의 현존을 믿음으로써 폐쇄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년은 마비라는 말이 유클리드(Euclid)의 기하학에 나오는 “노먼”(gnomon)이라는 말과 교리문답서의 “성직매매”(simony)라는 말과 같이 이상하게 들림을 인식한다.

Every night as I gazed up at the window I said softly to myself the word paralysis. It had always sounded strangely in my ears, like the word gnomon in the Euclid and the word simony in the Catechism. But now it sounded to me like the name of some maleficent and sinful being. It filled me with fear, and yet I longed to be nearer to it and to look upon its deadly work. (7)

마비라는 말은 노먼을 완전한 것으로, 성직매매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더블린 사람들의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유클리드는 “노먼”을 평행사변형에서 그 한 쪽의 모서리를 포함한 닳은꼴이 제거된 나머지 한 쪽의 남은 부분으로 정의하는데(Gifford 29), 이는 지성의 마비를 암시한다(Tindall 14). 그리고 성직매매는 성직, 면죄부, 교회의 이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Gifford 30), 도덕적, 정신적 마비를 설명하는 말이다(Tindall 14). 노먼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성직매매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은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은 이러한 사실을 점차 인식한다. 그래서 소년에게 마비라는 말은 어떤 해롭고 죄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들린다. 그는 그 말에서 공포를 느끼면서도 신부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것은 중심의 부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에 기인한다.

중심이 부재한다는 것은 소년이 정신적 아버지로 추구하는 신부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다. 소년은 고아이기 때문에 신부를 정신적 아버지로 여긴다(8). 이것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이하 『초상』으로 줄임)과 『율리시즈』(*Ulysses*)에서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가 부성을 추구하는 주제와 상통한다. 신부는 소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라틴어를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사의식과 그 제목의 의미도 설명해 주었다. 이와 같이 신부는 아버지가 없는 소년에게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Ryf 60), 소년은 그를 정신적 아버지로 추구한다. 부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심의 현존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편에서 신부는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무능력한 신의 상징이다(Magalaner & Kain 75-76). 윌리엄 요크 턴덜(William Y. Tindall)은 신부가 부성의 원형이며, 여기에서 부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14-15). 이는 신부가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신부의 육체적, 종교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코터 할아버지는 신부의 마비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신부가 모든 면에서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부의 마비는 소년의 꿈속에서 신부가 무언가를 고백하고 소년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듯 미소짓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부의 마비는 내용을 통하여 점차 구체화 된다. 신부가 거처하는 곳은 작고 어두운 방이며, 거기에서 그는 늘 큰 외투를 입고서 벽난로 옆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곤 한다. 그리고 그는 늘 마비된 듯이 졸고 있으며, 잠을 깨우기 위해 담배를 피우며, 손이 너무 떨려서 담배봉지를 옮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배를 코까지 올릴 때도 거의 홀려버리며, 쏟아진 담배가루를 제대로 쓸어내지도 못한다. 이러한 육체적 마비는 그의

크고 변색된 치아와 색이 바랜 푸르스름한 오래된 사제복, 검은색으로 변해 버린 붉은 손수건 등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사제복의 색깔이 바래서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는 것은 부패와 부패된 아일랜드를 암시한다(Ryf 61). 또한 신부가 그의 일과기도서를 마루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의 부패된 상황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신부의 마비는 노면과 성직매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적,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 불완전을 나타낸다. 틴덜은 신부가 자신이 성직에 부적합하다는 것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Tindall 14). 이러한 결과는 중심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다.

또한 성배를 깨뜨린 일로 그는 충격을 받고 침울해하고 혼자 방황했다고 한다. 성배를 깨뜨린 것은 종교적 의식을 파괴하는 것이며,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은 성배는 그 본연의 구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깨어진 성배는 완전함을 상실한 것을 상징하며(Connolly 79), “영적 교동이 없는 영성체”와 대주교의 “황무지 같은 생활”을 상징한다(Levin 38).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부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결국 고해소의 어둠 속에서 이상한 사람처럼 앉아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죽은 후에도 그는 엄숙하고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모습은 그가 성직에서 받은 참을 수 없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나타낸다(Kenner 42). 그러므로 신부는 중심의 현존을 믿는 부패된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를 나타내며, 신부의 마비상태는 중심이 부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신부는 소년에게 정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신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이것은 신부의 죽은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소년은 관속에 누워 있는 신부가 미소 짓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주머니와 자매들은 신부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엄숙하고 사나우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배를 그의 가슴 위에 얹은 채 관속에 누워 있을 뿐이다.

소년은 곧 죽을 것이라는 신부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신부가 죽었다고 하는 코트 할아버지의 말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년이 중심부재의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년은 신부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그를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는 신부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다. 중심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해방감과 노여움을 동시에 느낀다(10). 현존한다고 믿었던 중심이 부재한다는 사실에 노여워하고, 중심이 현존한다고 믿는 폐쇄된 세계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해방감을 느낀다.

소년이 부성과 중심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것이 부재한다는 사실은 그의 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긴 벨벳 커튼과 고품이 어려 있는 흔들리는 램프를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주 먼 곳인 풍습이 이상한 어떤 나라, 즉 페르시아에 와 있음을 느낀다. 이 꿈은 그의 도피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며, 그를 동방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동방은 그가 마비된 상황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Wohlpart 413). 그는 마비된 아일랜드의 현실에서 이상의 나라로 도피하고자 하지만, 꿈의 끝 부분을 생각해 낼 수가 없다. 페르시아는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이며 중심이다. 그러나 소년의 중심에 대한 소망은 기억할 수 없는 꿈으로 대체되어 버린다. 꿈에서 소년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성과 중심의 현존을 보는 듯하지만 꿈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그가 본 현존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꿈이 이러한 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의도되었다 하더라도 꿈 그 자체는 현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은 꿈속에서조차 권위 있고 정신적인 힘을 지닌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Litz 52). 이와 같이 소년의 이상은 현실에서나 꿈속에서나 다 같이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도피의 주제는 단지 환상과 꿈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써 아일랜드 생활의 마비에 의해 좌절될 뿐이다(Litz 52).

아주머니와 상가를 방문했을 때도 소년은 신부가 죽어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기를 꺼린다. 이것 역시 소년이 중심부재의 현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신부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부의 죽은 모습조차 소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소년이 정신적 아버지로 추구했던 신부는 육체적으로 마비되어 죽는다. 그리고 종교적, 지적, 정신적 측면에서도 그는 마비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소년이 중심으로 생각하였던 신부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더블린 사람들은 모두 중심이 현존한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적, 지적,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마비된 세계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소년은 자신이 추구해 왔던 정신적 아버지의 마비와 더블린 사회의 부패상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실로 이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소년의 순수한 시각으로 더블린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는 각성의 단계에 이른다. 이 단편은 『더블린 사람들』의 모든 단편들의 주제를 함축하면서 중심부재 현상을 암시한다. 소년은 중심의 부재를 인정하는 “새로운 사제”(Wohlpart 416)가 된다.

III

『자매들』의 소년이 정신적 아버지로 추구했던 신부에게서 여러 가지 마비의 양상을 발견하듯이, 『뜻밖의 만남』의 소년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추구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할 노인을 만나지만 타락한 성인 세계를 인식할 뿐이다. 휴 케너(Hugh Kenner)는 『자매들』과 『뜻밖의 만남』은 아버지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며(43), 벨 콜린즈(Bell Collins)는 이 두 단편을 아버지의 대리인을 찾는 탐색으로 설명한다(93).

이와 같이 소년은 일상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정신적 아버지를 찾아가는 모험을 감행하고자 한다. 그는 특히 학교의 지배체제에서 도피하기를 갈망한다. 지배체제는 이 학교가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더욱 심하다. 버틀러(Buttler) 신부는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읽다가 발각된 딜런(Leo Dillon)을 꾸중하면서 “네가 국립 학교 소년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18).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신부의 사고는 『초상』의 돌란(Dolan) 신부와 다르지 않다. 국립 학교 학생과 종교 학교의 학생은 달라야 한다는 그의 사고는 종교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신부는 권위와 지배체계의 상징이다. 종교가 추구하는 이원체제는 중심의 현존을 믿는 것에 기인하므로 폐쇄적이다. 소년은 이러한 사회에서 도피하기를 원한다.

소년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벌였던 전쟁 놀이도 이제 학교 생활과 같이 지루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나)는 실제 모험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18). 소년이 일상과 학교 생활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상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진짜 모험이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밖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목적을 지닌 여행 혹은 탐색의 원형을 함축한다(Tindall 17). 그는 모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며, 「자매들」에서 처럼 부성을 추구한다. 물론 이 때의 부성은 중심을 의미한다.

소년은 피전하우스(the Pigeon House)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중심의 현존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와 학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중심을 추구한다. 그가 중심을 추구하는 시작의 단계는 6월 첫 주의 따뜻하고 맑은 아침이다. 이것은 그의 출발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심부재의 사실을 인식할 때 날씨는 이와 반대로 제시된다.

소년과 마호니(Mahoney)는 정오에 리피강(the Liffey)을 건너지만 적어도 4시전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은 모험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더블린 사회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원래 목적에 다소 충실하지 않았던 것도 그 원인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피전하우스에 갈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사회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결과 그들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전하우스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의 실체는 「자매들」의 신부와 「애러비」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에 불과할지 모른다.

피전하우스는 더블린의 발전소(electric light and power station)이다. 여기

에서 빛(light)과 힘(power)은 신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피전하우스는 신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가 파멸되고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들은 현실에서 진정한 교회(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소년들이 피전하우스에 가려고 하는 것은 마비된 더블린 사회에서 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전하우스는 종교와 아버지의 상징이며(Kaye 87), 소년은 자신의 탐색을 통해서 부성을 추구한다. 소년들은 신을 만나고자 하며 절대적 중심이 현존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진정한 교회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자 하지만, 주변의 마비된 사람들은 그들이 피전하우스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년들이 피전하우스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만난 노인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노인은 「자매들」의 신부와 같이 무기력하고 마비된 인물이다. 노인은 그들이 피전하우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들이 결정적으로 피전하우스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 「자매들」의 마비된 신부와 이 단편의 노인은 더블린의 도덕적 마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노인은 신부와 마찬가지로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사회상을 나타낸다. 케너는 그 이상한 노인은 태형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두 소년이 피전하우스로 향하는 탐색여행을 방해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그의 태도와 반대감정이 병존하는 듯한 사랑의 금지령은 사악한 현실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43). 이와 같이 그의 모습은 정신적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소년들이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도 괜찮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년은 그가 매우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은 조금전의 태도와는 달리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매우 심하게 매를 맞아야 하고, 여자 아이들을 사귀는 소년들은 매우 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한다. 소년은 그의 감정적인 말에 놀라며, 말투에서 그의 논리적이지 못하며 사악한 면을 본다. 그러므로 노인은 현실, 무질서, 악을 암시한다(Ryf 83).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마비되어 있다. 한 손은 허리에 얹고 한 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의 모습은 육체적 마비를 나타낸다. 그는

신부의 제의처럼 푸른 검정색 양복을 초라하게 입고 있으며,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갑작스런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몸을 떨기도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의 정신적 마비 상태를 나타낸다.

마호니는 그 노인을 “괴상한 늙은이”(a queer old josser, 24)라고 말한다. “jossier”는 우상 숭배자와 광신자라는 뜻이며, 그 노인은 피전하우스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 대신 찾게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Tindall 18). 그는 이 작품에서 그들에게 아버지상으로 제시되면서도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아버지이다. 그는 그릇된 신이며 그릇된 아버지이다(Kaye 87). 그러므로 소년이 만난 아버지는 중심부재의 상징이다. 그는 중심의 현존을 믿는 폐쇄된 인물이기 때문에 정신적 아버지 혹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소년은 자신의 도피와 모험의 개념을 푸른색 눈에 두었다. 푸른색 눈은 그의 낭만적 이상의 상징이며(Tindall 19), 중심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푸른색 눈을 가진 해적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가 본 푸른 눈의 노르웨이 선원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푸른 눈을 가진 선원은 이국적인 로맨스를 나타낸다(Kaye 89). 그러나 소년은 그 선원에 게서 자신이 상상했던 중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선원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푸른 눈을 가진 노인을 만난다. 그러나 그 노인도 또한 그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다. 소년은 이 사람의 언행이 기이한 데다가 그의 눈이 “암녹색”(25)이라는 것에 또 한번 실망한다. 이 노인의 눈은 푸른색이며, 옷의 색깔도 암녹색이다. 암녹색은 「자매들」에 나오는 신부, 즉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또 다른 상징이다(Kaye 91).

그의 푸른 눈에 대한 낭만적인 꿈은 선원과 노인에 의해 사라진다. 소년이 꿈꾸어 왔던 푸른색 눈은 창조력과 상상력을 암시하지만, 창조적인 푸른색은 짙은 녹색의 눈을 가진 노인을 만남으로써 사악한 색깔로 변화한다(Ryf 63). 기셀린(Brewster Ghiselin)은 푸른 눈을 하고 푸른색을 띤 검정색 옷을 입은 그 노인을 “지옥과 같은 무질서한 정신의 이미지”라고 설명한다

(72). 그러므로 소년의 꿈은 결국 부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소년은 부성을 추구하지만 푸른 눈을 가진 하찮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소년에게 실망과 두려움을 안겨줄 뿐이며, 아버지나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소년은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키려 하지만, 그가 생각한 환상은 낭만적이고 실재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되어 버린다(Ryf 63). 소년은 중심에 이르지 못하며, 중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도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소년은 늘 친구 마호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경멸했던 것을 뉘우친다. 우월감이나 지적 자만심은 이분법적 서열 체계를 형성하는 사고이다. 그는 자신이 이 괴짜 노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폐쇄적인 서열체계의 사고를 해체한다. 이 단편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도덕적인 주제 즉, 오만은 죄악이라는 것이다(Tindall 19). 그는 친구에 대해 가졌던 자신의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의 단계에 이른다. 소년은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더블린의 실체를 인식한다.

How my heart beat as he came running across the field to me!
He ran as if to bring me aid. And I was penitent; for in my
heart I had always despised him a little. (26)

아버지를 추구하려는 소년의 탐색은 그가 도중에 만난 이상한 노인 때문에 실패한다. 노인은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부성이 부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소년은 중심을 믿고 추구하지만 결국 중심의 현존은 현존하는 것처럼 보일 뿐 부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IV

『애러비』에 나오는 소년도 역시 자신이 믿는 중심을 추구하지만 그 부재

를 인식한다. 틴달은 이 이야기를 환상과 환멸 그리고 각성으로 설명한다 (19). 소년은 환상을 지녔다가 환멸을 느끼고 마지막에는 각성하는 단계를 거친다. 각성은 중심부재의 인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환상과 현실, 현존과 부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더블린 사회는 중심의 현존을 믿는 폐쇄된 사회이다. 노스 리치먼드 거리(North Richmond Street)가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은 더블린 사회의 폐쇄된 측면을 암시하며, 소년이 추구하는 중심은 부재한다는 것을 예시한다. 막다른 골목은 더블린에서의 어떠한 탐색도 막다른 길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Collins 95). 이는 어떠한 중심도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블린사람들은 중심의 현존을 믿고 추구함으로써 마비된 사회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폐쇄적인 면은 종교를 대변하는 신부와 관련된 설명에서 볼 수 있다.

소년의 집에 세들어 살았던 신부의 방은 오랫동안 문이 닫혀져 있어서 곰팡이 냄새나는 공기로 가득하며, 창고에는 쓸모 없는 낡은 휴지가 흩어져 있고, 신부가 소유했던 책은 책장이 말려 축축하게 되어 있으며, 정원은 황량하고, 숲속에는 녹슨 자전거 펄퍼가 있다. 이와 같이 신부가 살던 방의 주변은 활기 없는 폐쇄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또한 신부는 자선심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기관에, 모든 가구는 그의 누이에게 상속한다고 써 놓았다. 그가 진정으로 자선심이 많은 신부였다면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더블린 사회의 정신적, 종교적 마비를 반영한다. 특히 신부의 죽음은 더블린에서의 정신적 지지의 부재를 상징한다(Ghiselin 72). 또한 소년이 살고 있는 거리의 집들이 갈색이라는 것과, 소년이 좋아한 책의 색깔이 노랗다는 것, 맨전의 누이의 얼굴색이 갈색이라는 것과 그녀가 갈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소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부패와 마비를 상징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소년도 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은 신부의 책들 중에 어떤 한 권의 책을 책장의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좋아한다. 소년이 책의 색깔을 보고 그 책을 좋다고 말한 것은 실체가

아닌 외양만으로 사물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실재로는 자선심이 없는 신부를 보고 자선심이 강하다고 느낀 것도 역시 그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년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알지 못하며 신부와 더블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심의 현존을 믿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은 맨건의 누이(Mangan's Sister)의 외모를 보고 낭만적인 사랑에 빠진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의 심장이 뛸 만큼 그녀에 대한 정신적인 사랑은 절정에 달한다. 그는 그녀의 실체보다도 외모에 정신을 잃어버린다. 소년은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빛과 어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Tindall 20). 그의 사랑은 소년이 아주머니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 시장에 따라 갔을 때 절정에 이른다. 시장은 술주정꾼들과 물건을 흥정하는 여인들의 소란과 거리의 가수들이 부르는 콧노래 소리 등으로 떠들석하다. 시장의 이러한 모습은 더블린 사회를 묘사한 것이지만, 이러한 소음들은 소년에게 생에 대한 유일한 흥분의 소리로 들린다. 그는 중세의 기사처럼 애러비라는 이국적인 세계로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려 한다(Litz 51). 그러면서 그는 이 소란스럽고 마비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수많은 무리 속으로 성배를 안전하게 운반하고 있다고 상상한다(29). 이와 같이 그녀에 대한 낭만적 사랑은 종교적 열정으로 변한다. 그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낭만적이고 종교적인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는 환상을 더욱 강하게 한다(Collins 96). 이러한 그의 사랑은 아일랜드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

소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절정에 이르지만 교회의 모습은 외양과 실체가 다른 모습이다. 교회의 외양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체는 부재하며, 그 구성원들은 중심의 현존을 믿음으로써 폐쇄되고 마비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소년은 아직 더블린 사회의 실상 즉, 맨건의 누이의 실체와 더블린 사회의 마비, 종교인들의 허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종교적 열정을 지니고 애러비에 가고자 한다. 애러비라는 말은 그에게 동방적인 마법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며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떠오른다(30). 동방의 신비가 사실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애러비의 실체와 이상적인 사랑의 개념은 허구로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년이 생각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통해 드러난다.

맨건의 누이에게 바자에 가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말한 이후 그는 수 많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황폐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평화로움을 느껴야하지만, 그녀로 인해 혼란에 빠질 뿐이다. 그리고 그는 바자가 열리는 날까지 지루한 날들을 보내며 그녀의 영상에 시달린다. 이것은 소년의 사랑이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아저씨의 늦은 귀가로 애러비에 늦게 도착한다. 소년은 아저씨에게 자신이 저녁에 바자에 갈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지만, 그는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으며, 아침에 소년이 한 말은 잊어버리고 있다. 아저씨는 이 작품에서 소년에게 정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할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는 소년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집에 늦게 돌아와 소년이 바자에 때마침 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성으로 제시된다. 아버지의 불완전한 모습은 역시 중심부재의 이미지이다.

이는 바자의 세속적 분위기에 의해 구체화 된다. 소년이 바자에 도착하였을 때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시장의 대부분은 어둡다. 그런데 소년이 간 바자는 그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나라도 자신의 소원을 풀어줄 그런 장소도 아니다. 즉, 그 바자는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시장의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을 무렵 두 남자가 돈을 세는 모습과, 한 젊은 여자와 두 남자의 의미 없는 이야기는 더블린 사회의 마비를 나타낸다. 동경했던 이상적인 나라는 세속화된 세계이다. 두 남자와 한 여인은 영국식 억양으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들이 영국식 억양을 사용하는 것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피지배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배/피지배의 양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오히려 지배국 언어의 억양을 사용하는 것은 피지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자의 비천한 분위기는 소년에게 중심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맨건의 누이의 실체도 이와 같은 것으로 드러난다. 작가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녀를 정신적인 대상으로 이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Magalaner & Kain 78). 물론 그녀는 소년에게 처음에는 이상적인 여인으로 제시된다. 그는 그 실체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즉 그는 중심의 현존을 믿고 있다. 소년은 그녀가 영성체의 성체를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과 마리아 혹은 신부와 같이 자신을 정화하는 힘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환상으로 드러난다. 소년이 본 신부의 책 중에서, 『대수도원장』(*The Abbot*)에 나오는 메리(Mary)는 성모 마리아를 연상케 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창녀이며, 『비독의 회고록』(*The Memiors of Vidocq*)에 나오는 비독이 도둑이기 때문에 소년이 지닌 사랑은 환상이 되어버릴 것이다(Collins 96). 단 기포드(Don Gifford)는 소년이 맨건의 누이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일랜드의 낭만시인 제임스 클래런스 맨건(James Clarence Mangan)의 가장 유명한 시 중의 하나인 「다크 로잘린」(“Dark Rosaleen”)에서, 화자가 로잘린에게 헌신하는 것과 대조될 수 있으며, 로잘린은 아일랜드를 의인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44). 그러므로 맨건의 누이는 교회, 아일랜드, 배반자, 유다를 나타낸다(Collins 95). 소년은 아일랜드의 실체를 믿지만 아일랜드는 실상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을 뿐이다.

틴덜은 맨건의 누이는 아일랜드 그 자체이며 마녀이고, 그 마녀는 애러비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년이 바자로 가게 한다고 설명한다(20).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마녀가 소년으로 하여금 바자에 가도록 하지만 그는 다 끝난 바자의 세속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 그러므로 맨건의 누이는 결코 이상적인 사랑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외양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여인이며, 또한 환상의 소멸을 의미한다(Collins 97). 더블린의 이러한 환경은 소년이 중심부재의 상황을 인식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소년은 맨건의 누이의 외양만 보고 그녀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바자의 실상을 알게됨으로써 그녀의 실체를 인식한다. 사실 그녀는 그를 유혹하는 존재이다. 소년은 자신이 생각했던 바자와 그녀의 실체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것과 아일랜드가 부패되고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년은 그녀의 이름이 자신의 어리석은 피를 끓게하는 소환장과 같다고 말한다(28). 이와 같이 소년은 시장의 세속적인 모습을 보고 결국 자신의 “어리석은 피”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허영에 내몰리고 조소받는 한 마리의 짐승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실에 번민과 분노를 느낀다.

Gazing up into the darkness I saw myself as a creature driven
and derided by vanity; and my eyes burned with anguish and
anger. (33)

소년이 이상적인 사랑으로 인식했던 맨전의 누이는 사실 그렇지 않은 존재로 드러난다. 이것 역시 중심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소년은 그녀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생각하며 종교적인 경지에까지 승화시키지만, 작품의 마지막에서 그녀의 실체를 인식한다. 그는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애러비는 소년에게 “동방의 마법”(Ryf 64)이며, “전설적인 아라비아” 같은 곳이며(Ghiselin 66),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정취의 개념”(Brooks 93)이었지만, 이제 이러한 환상은 사라져 버린다. 소년은 자신이 중심으로 추구한 바자에 도착하지만, 그 바자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의 허구성을 인식한다. 결국 그의 이상적이고 종교적인 사랑은 아저씨의 늙은 귀가와 바자의 비천한 분위기에 의해 비속한 현실로 대체된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바자에서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짓말”(fib, 33)이라는 말처럼 소년은 지금까지 그가 생각해 온 이상적인 것들이 ‘거짓’임을 인식한다.

정신적 아버지에 해당하는 신부와 아저씨, 낭만적 사랑으로 묘사되는 맨전의 누이, 기대했던 바자의 허상 등은 소년이 추구하는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이 추구하는 바자는 그에게 정신적으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고 중심을 믿고 추구하는 더블린 사람들과 자신에 번민과 분노를 느낀다.

소년에게 중심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소년이 외양만

보고 신부가 소유했던 책을 좋아하게 된 것은 소년이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부의 책이 축축하고 휘말려 있고 색깔이 노랗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부가 중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년은 처음에 신부가 자선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가 소유했던 책의 색깔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책을 좋아하고, 멘전의 누이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그녀를 사랑하고, 애러비라는 시장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시장에 갈 수 있도록 아저씨가 돈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중심의 현존을 믿었지만 이러한 중심은 사실 부재하는 것이다.

소년은 바자의 현현을 통해 현실은 삶의 희망과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결국 그의 부성추구 의지는 현실에 의해 좌절된다(Magalaner & Kain 79). 이것은 중심의 부재를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지이다. 소년은 이제 2페니를 주머니 속에 떨어뜨림으로써 선물을 사는 것을 포기한다. 소년이 이상화했던 바자는 싸늘하고 어둡고 인공적이고 「자매들」의 죽은 신부가 살았던 암울한 집과 같은 것으로 드러난다. 바자에 대한 매혹은 각성으로 이어진다(Tindall 21). 콜린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무지에서 인식으로, 순진함에서 성숙함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93). 이 말은 중심부재의 인식을 뜻한다.

V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유년기 소년들의 눈을 통해 중심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더블린 사람들은 중심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정치, 종교, 사회적인 측면에서 폐쇄된 심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믿고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더블린 사람들의 폐쇄되고 마비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이 중심의 현존을 믿고 있으며 그들이 믿는 현존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자매들」에서 소년은 정신적, 육체적 마비 때문에 정신적 아버지가 그 역

할을 하지 못함을 깨닫고, 「뜻밖의 만남」에서 소년은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피전하우스에 도달하지도 못하며, 도중에 만난 사람이 그의 속성 때문에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인식한다. 그리고 「애러비」에서 소년은 정신적 사랑과 아버지 그리고 바자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소년들의 의식을 통해 초월적 중심이 현존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유년기를 제외한 다른 단편들에는 주인공들이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고서 새로이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져 보지만 의지가 부족하여 좌절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단편은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시작 의지도 없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사자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의 현존과 부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심을 믿는 것은 절대적 의미를 믿는 것이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은 순환하거나 폐쇄된 테두리 속에서 살아 간다. 이러한 폐쇄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작가는 더블린의 마비된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들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중심부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개방적인 삶을 추구하며 새로운 '시작' 행위를 시도할 것을 시사한다.

〈안동대학교〉

인 용 문 헌

- Baker, James R. & Thomas F. Staley. *James Joyce's Dubliners: A Critical Handbook*.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1969.
- Brooks, Jr., Cleanth, and Robert Penn Warren. "The Chalice Bearer." Baker & Staley 93-95.
- Collins, Bell L. "'Araby' and the 'Extended Simile'." Garrett 93-99.
- Connolly, Thomas E. "Joyce's 'The Sisters'." Baker & Staley 79-86.
-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 C. Spivak. Baltimore & London: Johns Hopkins UP, 1976.
- , *Positions*. Trans.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1.
- , "Différance." *Margins of Philosophy*. By Derrida. Trans. Al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2. 1-27.
- ,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Writing and Difference*. By Derrida. Chicago: U of Chicago P, 1978. 278-93.
- Garrett, Baker K.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Dubliners*. New Jersey: Prentice-Hall, 1968.
- Garrett, Peter K. "Introduction." Garrett 1-17.
- Ghiselin, Brewster. "The Unity of *Dubliners*." Garrett 57-85.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nd ed. California: U of California P, 1982.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14.
- ,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Kaye, Julian B. "The Wings of Daedalus." Baker & Staley 87-92.
- Kenner, Hugh. "Dubliners." Garrett 38-56.

- Levin, Harry. *James Joyce: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Faber & Farber, 1960.
- Litz, A. Walton. *James Joyce*. Boston: Twayne, 1966.
- Magalaner, Marvin, and Richard M. Kain. *Joyce: the Man, the Work, the Reputation*. New York: New York UP, 1959.
- Ryf, Robert S. *A New Approach to Joyce: 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a Guidebook*. Berkely &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62.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59.
- Wohlpert, A James. "Laughing in the Confession-box: Vows of Silence in Joyce's 'The Sisters'." *James Joyce Quarterly* 30(1993): 409-18.